

KIA 루키 김현수 “150km 던지고 싶다”

 KIA 타이거즈
아마미 캠프를 가다

일본=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2026 신인드래프트 2순위
나주 광남고 최초 프로 입단
구속 147km에 다양한 변화구
“홈런 맞아도 내 공 던질 것”

KIA 타이거즈의 ‘루키’ 김현수의 어필무대가 시작됐다.

광남고 출신의 투수 김현수는 지난 2026 신인드래프트에서 KIA가 가장 먼저 호명한 기대주다. 몸 관리 차원에서 지난 11월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명단에 제외됐던 김현수는 아마미오시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프링캠프를 통해 프로 데뷔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훈련을 통해 기본을 다진 뒤 2일 캠프 첫 불펜 피칭에 나섰다.

김현수의 첫 피칭이 진행되면서 이범호 감독은 비롯한 코칭스태프의 시선이 불펜에 집중됐다. 이날 김현수는 20개의 공을 던지면서 워밍업을 했다.

직구 최고 147km를 찍은 그는 커브, 스위퍼, 포크볼도 구사했다.

지켜보는 이들의 입장에서 감탄사가 연이어 나왔고 피칭이 끝난 뒤 이범호 감독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오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정도로 힘 있는 공을 보여준 김현수는 “80%정도로 했다. 오바한다고는 못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라운드에서 뽑혔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다. 광주에서 계속 운동하면서 트레이너 코치님들에게 배워서 힘도 키우고,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됐다”며 “커브, 스위퍼, 스플리터를 던졌다. 커브는 생각한 것처럼 낙차가 커서 마음에 들었고, 스위퍼는 빠른 스피



KIA 타이거즈의 2026 루키 김현수가 지난 2일 일본 아마미오시마 아마미 구장에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드에서 훡으로 휘는 속도가 좋아졌다. 스플리터는 악한 것 같아서 더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첫 불펜 피칭을 자평했다.

화순중 시절 외야수를 봤던 그는 고등학교에서 부쩍 키가 크면서 투수로 전향했고, 광남고 1호 프로 선수가 됐다.

김현수는 “초등학교 때는 내야수, 중학교에서는 외야수를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계속 키가 커졌다. 공 던지는 자세가 예쁘니까 투수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투수를 하게 됐다”며 “홈런을 맞아도 다시 또 코스에 공을 던져서 승부를 할 수 있는 투수다”고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했다.

첫 불펜 피칭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아직 김현수가 갈 길은 멀다. 힘을 더 키우고, 세밀함을 더 해야 하는 만큼 스프링캠프를 통해 성장의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김현수는 “고등학교 때 야구를 하면서 이런 선배님들과 야구를 하면 어떨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했었다. 아마추어 때와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선배들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트레이닝이나 힘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또 선배님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게 부족해서 선배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광남고 첫 프로 지명이니까 학교도 많이 알려

야 한다는 생각도 많지만 선배님들에게 더 많이 배우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다”며 “150km 이상 던지는 투수가 되고 싶다. 제구와 변화구를 신경 쓰면서 하겠다. 바깥쪽 직구 제구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스플리터 제구도 잡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선배들을 보고 배우고 있는 그는 특히 전상현과 제임스 네일을 주목하고 있다.

김현수는 “고등학교 때 KIA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 전상현 선배의 직구 구위와 변화구를 보면서 좋다고 생각했다. 마운드에서는 공 하나하나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잘 쟁쟁해주신다. 배우고 싶다”며 “스위퍼를 독학으로 배웠다. 오타

니의 스위퍼를 보면서 배웠는데 제임스 네일에게 배워보고 싶다. 아직 어색해서 물어보지 못했다(웃음). 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강하게 던지면 왼쪽 타자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잡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기분 좋게 마운드 도전을 시작한 김현수는 부상으로 경계하면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겠다는 각오다.

김현수는 “1군 데뷔해서 다치지 않고 1년 보내자는 생각으로 캠프를 보내고 있다. 1군 데뷔해서 팬들에게 재미있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wool@kwangju.co.kr〉



경험으로 광주FC를 이끌어 가고 있는 부주장 최경록(왼쪽부터), 주장 안영규, 부주장, 신창무.

세계문화유산 아마미에서 KIA 선수들 쉴 때 뭐할까

낚시·운동·OTT·일본어 공부

각자 방식으로 휴식과 재충전

훈련 집중 후 스트레스 날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새로운 캠프지에서 ‘취미’ 찾기기에 나서고 있다.

KIA는 지난달 25일

부터 일본 아마미오시마 아마미 구장에서 2026 시즌을 위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 2군이 캠프지로 사용했던 곳이다.

프로 구단이 캠프를 소화했던 만큼 야구장, 불펜투구장, 실내 연습장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육상 트랙까지 있는 만큼 훈련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지만 즐길거리가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아마미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연적인 섬인 만큼 대도시와 달리 즐길 거리가 많지 않다. 그래서 고된 훈련 뒤 맞는 달콤한 휴식날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선수들은 가볼 만한 곳, 맛집들을 공유하면서 아마미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숙소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점이 휴식날 선수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다.

김선빈은 자연을 즐기기로 했다. 숙소가 바닷가에 있는 만큼 김선빈은 한준수, 김석환 등과 낚시대를 구매해 ‘김태공’이 됐다.

야심차게 낚시에 나섰지만 아직 손맛을 느끼지 못했다. 김선빈은 휴식일이었던 3일에도 낚시대는 드리웠지만 시간만 낚고 속으로 복귀했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이도 있다. 이해창 배터리 코치는 쉬는 날 늦잠과 운동으로 재충전을 한다.

이해창 코치는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평소보다는 늦게 일어나서 웨이트를 한다”고 설명했다.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쉬는 날 아이 쇼핑도 하고 커피 마시러 다니면서 문화 생활을 해야 충전되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한 이태양은 “여기는 시내가 한눈에 담길 정도다. 방에서 OTT만 보게 된다”고 웃었다.

김호령도 “쉬는 날 주로 방에만 있다.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했다. 배우 고윤정의 팬인 김호령은 최근에는 ‘이 사랑 풍역이 되나요’에 빠져있다.

공부할 결심을 한 이도 있다.

불펜포수 박창수는 “쉬는 날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고 캠프에서의 ‘열공’을 이야기했다.

KIA는 지난해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촌 아버인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렀다. 올해는 자연 속에서 ‘극과 극’의 캠프를 치르고 있다. 선수들에게도 캠프지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이다.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자연 속 캠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베테랑이 모범 보여라

1·2차 동계훈련 마치고 남해서 시즌 준비 속도
이정규 감독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팀 이끌겠다”



GWANGJU
FOOTBALL CLUB

광주FC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

태국 후아힌에서 1차 동계

훈련을 하면서 손발을 맞췄던 광주는 지난 1일 남해로 장소를 옮겨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는 오는 15일까지 남해에서 본격적인 실전 준비를 하면서 3월 1일 원정 경기로 진행되는 제주 SK FC와의 2026 시즌 개막전을 준비한다.

이정규 감독 체제로 새로 출발하는 시즌이자, 선수

등록 금지 징계로 없는 살림으로 상반기를 꾸려가야 하는 위기의 상황인 만큼 광주는 베테랑의 경험으로 위기 돌파를 노리고 있다.

이에 맞춰 이정규 감독은 베테랑으로 주장단을 구성했다.

안영규가 1년 만에 ‘캡틴’으로 복귀해 광주에서 주장으로 5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고, 신창무와 최경록이 부주장으로 안영규를 돋고 있다.

이정규 감독은 “선수들이랑 많은 대화를 했다. 내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누구보다 광주와 나를 잘 알고 선수들을 잘 아는 그런 선수로 주장을 선임했다. 스태프 쪽에서도 신뢰를 했다”며 “요즘은 억지로 끌고 가는 문화는

없고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문화다. 제일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는 선수들을 하다 보니까 무게가 있다”고 주장단 선임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규 감독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베테랑을 통해 팀을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하승운이 베테랑 주장단과 호흡하면서 젊은 선수들을 아우르는 ‘전천후 활약’을 하고 있다.

올 시즌 총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은 그는 이정규 감독에게는 ‘9번’ 역할을 주문받았다.

“하승운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젊은 선수들을 잘 융합시키고 있다. 부주장을 시키고 싶었는데 등번호에 맡는 역할을 주문했다. 9번을 겨우는데 거기 에 집중하라고 했다”면서 웃은 이정규 감독은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공격 쪽에 배치했지만 어디든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다”고 하승운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